http://dx.doi.org/10.5392/JKCA.2012.12.07.169

제주지역 범죄발생 유형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향

Jeju Type of Crime Analysis and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Corresponding

김정완*, 조현빈**
경찰청*,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Jung-Wan Kim(goldgum_kim@hanmail.net)*, Hyun-Bin Jo(johyunbin@korea.com)**

요약

인간이 탄생한 이후,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변천되고,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비전략적 방식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논자는 그간 강조되어져 왔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ied policing, COP)에 국가경찰이 병행되는 방식을 떠올렸고, 그 확인 대상으로 '07년 7월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기존 2개 경찰서에 하나의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자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치경찰 및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 되기 전 제주지역 범죄발생통계와 그 이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범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별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논자의 최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의 전략적 범죄예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 중심어 : | 전략적 범죄예방 | 제주지역 범죄발생유형 분석 |

Abstract

It is the fact that crime has always co-existed with human history;that preventive measures have always been taken while it has been transformed and developed in some forms. We, in the meantime;should not be negligent in the matter that our preventive measures are rather short sighted, and non strategic in many ways. Now then, would we be able to question, if our modern crime preventive measures have been modernized and become more strategic? Certain point has been raised to myself;especially regarding (community oriented policing cop); this has been one of the strategic crime preventive measures co-performed by the central police;Jeju-special independent province maybe an appropriate example; which has become special self rule province in July, 2007; establishing not only independant police but also have established police station addition to already existing police stations. To proof my opinion; I have tried to compare and contrast the statistics of the crime rates and types of the Jeju area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 police and police station; also to see how patterns changed.(if there has been any.) I have also tried to analyse if there is any special type of crime statistics in Jeju province, by analysing current crimes in accordance to populations. Altough it has not much reached my initial expectations, I hope it still is meaningful to have been able to show some ways to prevent crimes in Jeju-strategically.

■ keyword : | Strategic Crime Prevention | Types of Crime Analysis in Jeju |

접수번호 : #120523-002
접수일자 : 2012년 05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6월 18일
교신저자 : 조현빈, e-mail : johyunbin@korea.com

I. 서 론

인류역사 속에서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현재의 경찰역할을 하던 이들은 항상 있어 왔었다. 하지만, 범죄를 어떻게・잘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그때그때 환경・정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학자・실무자들이 그 대안을 제시했고, 그 중 한 모델이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 COP)이다.

우리나라는 '06년 지방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했고, 그해 7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이 발족하여 '07년 3월 1일 제주자치경찰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그간 파출소・경찰서 단위로 지엽적인 COP활동을 펼쳐왔지만 국가경찰이라는 중앙집권적인 경찰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COP활동을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또한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가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치안역량을 측면지원 하고, 치안공백을 매우기 위하여 07년 11월 30일 기존 2개의 경찰서(제주, 서귀포)외 서부경찰서를 신규 개설하였다. 누가 보아도 향후 제주지역의 치안역량은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 졌고,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로 더욱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경찰활동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07년 대비 '08년 전국 총범죄 발생건수가 11% 증가한 반면 제주지역은 17%가 증가하였다. 전국최초로 지방자치경찰이 시작되었고, 경찰서도 신규로 개소되는 등 지역주민과 가까이 갈수 있고, 치안역량측면에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였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통계상 치안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안은 없는가?, 논하고자 한다.

II. 제주 지역적 특성

2.1 제주지역 일반현황[1]

'11년 12월 기준, 제주지역 인구는 총 583,284명이며 이중 남자가 292,313명, 여자가 290,971명, 외국인 수는 총 7,128명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유인도 수는 총 8개이고 유인도 거주 인구는 총 4,509명이며 무인도 수는 71개이다. 연간 관광객 수는 총 8,740천명으로 이러한 관광객 수는 제주지역 인구의 15배에 달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다.

2.2 제주지역 국가경찰 일반현황[2]

제주지방경찰청은 '06.7.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그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10.31 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격상하는 한편, '07.11.30 기존 제주경찰서를 제주 동부, 서부경찰서로 분리・개서 하였다. '12.5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의 정원은 총 1,406명이며, 그 조직은 지방청은 청장 외 2담당관 6과 32계로 이뤄져 있으며 일선은 경찰서 3개 지구대 6개 파출소 18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중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동부경찰서는 정원 402명중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195명, 서부경찰서는 정원 316명중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136명, 서귀포경찰서는 정원 307명중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156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2.3 제주자치경찰 일반현황[2]

'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07년 3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06년 6월 16일 국가경찰 38명의 자치경찰 이관과 '06년 12월 27일 국가・자치경찰간 '업무협약' 체결에 힘입은 시행이었다. 조직은 최초 제주특별자치道에 자치총경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단', 제주・서귀포에 자치경정을 대장으로 하는 '자치경찰대' 설치로 체계를 갖췄으나, '12년 1월 기초단위(행정시) '대' 폐지로 조직이 광역단위 '자치경찰단'으로 일원화 되었다. '12년 5월 기준 제주자치경찰의 정원은 127명으로 국가에서 이관된 38명, 신규 채용된 69명 외 20명이 결원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계약직 공무원의 정원은 67명이나 8명이 과원된 7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맡고 있는 업무는 생활안전・지역교통・경비사무・식품・산림 등 특사경사무

17종으로 주요관광지 등 국가와 자치경찰간 업무협약상 중점활동지점(공항·만, 주요관광지 5개소, 한라산 등산로, 올레길, 지역행사장, 5일장 2개소, 유실물업무처리, 학교주변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09년도에 주민봉사대가 신설되고, '12년 3월 8일 기마경찰대가 신설되기도 했다.

Ⅲ. 제주지역 범죄현황 비교·분석

아래 [표 1]과 같이 '07년과 '08년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 범죄 총건수는 '07년 1,965,977건, '08년 2,189,452건으로 약 11%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대표적 유형으로는 무면허 운전이 '07년 89,920건에서 '08년 156,526으로 약 74%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있지는 않지만, 무면허 운전의 동기는 주로 생계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당시 시대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해 본다. 또한 이 논문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쟁점이 전국적으로 상승한 범죄유형이 아닌 제주지역만의 특수한 범죄유형이므로 무면허 운전 단속건수 증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표 1. 전국 유형별 총범죄 발생 현황[3]

(단위 : 건)

	총계 (07년대비)	형법범	강력범 (폭력)	특별범범	무면허	음주 운전	비고
2007	1,965,977	845,311	255,459	1,120,666	89,920	351,451	
2008	2,189,452 (11%↑ +223,475	897,536 (6%↑ +52,225)	261,852 (2%↑ +6,393)	1,291,916 (15%↑ +171,250)	156,526 (74%↑ +66,606)	387,455 (10%↑ +36,004)	
2009	2,168,185 (10%↑ +202,208)	993,136 (17%↑ +147,825)	269,734 (5%↑ +14,275)	1,175,049 (4%↑ +54,383)	98,234 (9%↑ +8,314)	290,260 (17%↓ −61,191)	
2010	1,917,300 (2%↓ −48,677)	939,171 (11%↑ +93,860)	239,008 (6%↓ −16,451)	978,129 (12%↓ −142,537)	58,751 (34%↓ −31,169)	267,316 (23%↓ −84,135)	

아래 [표 2]는 '07년과 '08년도에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유형을 간략하게 설명해 놓았다. '07년도 제주지역 총범죄발생 건수는 23,219건, '08년도는 27,270건으로 약 17%정도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인 11%상승보다 6%가 높은 수치다. 또한, '07년과 '08년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형법범이 전국 평균 6% 상승한 반면 제주지역은 14% 상승, 강력범(폭력)이 전국 평균 2% 상승한 반면 제주지역은 18% 상승, 특별범이 전국 평균 15% 상승한 반면 제주지역은 20% 상승, 무면허 운전이 전국 평균 74% 상승한 반면 제주지역은 65% 상승, 음주운전이 전국 평균 10% 상승한 반면 제주지역은 28% 상승한 것으로 비교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단 한 종목 무면허 운전 발생율 뿐이다. 그 외 대다수 유형의 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증가하였으며 그중 강력범(폭력)은 전국 평균보다 16%, 특별범(특히 음주운전)은 18%나 많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표 2. 제주지역 유형별 범죄발생 현황[4]

(단위 : 건)

	총계 (07년대비)	형법범계	강력범 (폭력)	특별범범계	무면허	음주운전	비고
2007	23,219	11,785	3,537	11,434	925	4,900	
2008	27,270 (17%↑ +4,051)	13,507 (14%↑ +1,722)	4,199 (18%↑ +662)	13,763 (20%↑ +2,329)	1,529 (65%↑ +604)	6,279 (28%↑ +1,379)	
2009	24,694 (6%↑ +1,475)	12,922 (9%↑ +1,137)	4,088 (15%↑ +551)	11,772 (2%↑ +338)	1,000 (8%↑ +75)	4,317 (11%↓ −583)	
2010	23,440 (0.9%↑ +221)	13,486 (14%↑ +1,701)	3,606 (1%↑ +69)	11,954 (4%↑ +520)	1,115 (20%↑ +190)	4,973 (1%↑ +73)	

여기서 우리는 아래 [표 3]과 같이 또 하나의 비교통계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단순 범죄발생건수만을 가지고 제주지역의 특수한 범죄발생 증가현상을 분석할 수 없기에 '05년도 전국인구총조사 자료(주민등록지 기준)와 '06년 1년 동안 각 지역 개개 경찰서별로 발생한 범죄통계를 비교하여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율을 도출, 전국 경찰서별 범죄 발생율 순위를 매겨 보았다. 그 결과는 참 재밌게 나왔다.

유동인구 등 주민등록지 인구에 변화를 주는 외부변수를 제외한 수치 즉, 굉장히 한쪽 측면에 치우친 왜곡된 통계라고도 볼 수 있으나 제주지역에서 상승하고 있는 범죄발생율을 해석하는데 썩 괜찮은 자료라고 생각하기에 한번 인용하고자 한다.

표 3. 지역별 인구(천명당) 범죄발생율 단순 비교(06년)[5]

지방청	관서	관할인구(명)	계	5대범죄					
			발생율(천명당)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순위						
서울	남대문	23,033	121.7	71.2	0.09	0.43	1.13	24.3	45.3
			1	1	4	1	1	1	1
부산	부산중부	52,618	49.4	34.4	0.06	0.32	0.55	15.3	18.1
			2	2	11	4	6	2	3
서울	강남	200,265	44.5	20.3	0.02	0.32	0.63	5.1	14.3
			3	8	89	3	2	45	7
제주	제주	400,701	22.5	17.5	0.02	0.10	0.23	8.2	8.9
			11	9	90	62	35	7	10
제주	서귀포	156,868	19.5	14.6	0.04	0.05	0.14	6.9	7.4
			19	21	25	159	125	13	32
강원	정선	44,203	17.6	8.3	0.02	0.02	0.11	2.9	5.2
			29	124	100	202	170	129	97
강원	태백	52,463	14.4	10.3	0.04	0.06	0.13	2.8	7.3
			66	71	34	152	140	139	36
전북	임실	32,681	5.9	4.3	0.12	0.06	0.12	1.1	2.9
			234	226	1	143	159	225	211

※ 인구기준 : ' 05년 인구총조사 통계, 유동인구 등을 제외한 주민등록된 인구 기준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서울 남대문 지역은 인구공동화 현상이 뚜렷한 곳이다. 즉, 상주인구(주민등록된)는 별로 없는 반면에 매일매일 이곳으로 출근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은 넘쳐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주민등록인구(천명당) 대비 범죄 발생율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부산중부경찰서가 2위 서울 강남경찰서가 3위를 차지했다. 제주지역은 어떨까?

'06년 말 당시 전국 234개 경찰서 중 제주경찰서가 11위, 서귀포경찰서가 19위를 차지했다. 이는 제주지역 또한 관광객 등 주민등록인구 대비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5대 범죄별 유형별 순위를 보면, 제주경찰서는 강도가 62위, 강간이 35위인 반면, 절도가 7위, 폭력이 10위로 5대 범죄 중 경미한 범죄의 발생율이 타 지역보다 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귀포경찰서도 마찬가지로 강도가 159위, 강간이 125위인 반면, 절도가 13위, 폭력이 32위로 제주경찰서와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1]과 같이 '10년도 제주지역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율 또한 47.6건으로, '06년 당시 발생율 3위인 서울 강남경찰서 발생율 44.5건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제주지역의 발생범죄 유형에서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가 차지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표 3-1. 제주지역 인구(천명당) 범죄발생율(10년)

지 역	관할인구(명)	총범죄 발생건수	5대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율(천명당)						
제주도	531,905	25,334	9,595	19	54	255	4,554	4,713
		47.6	18.02	0.03	0.1	0.47	8.56	8.86

※ 인구기준 : ' 10년 인구총조사 통계, 유동인구 등을 제외한 주민등록된 인구 기준

아래 [표 4]는 제주지역이 유동인구 등 외부변수에 의한 범죄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극명히 비교하여 보여준다. 앞서 [표 3]에서 제주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율은 11위(제주서), 19위(서귀포서)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단순 범죄발생 건수 또한 제주경찰서의 경우 전국 3위로 9,01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서귀포경찰서의 경우는 그보다는 한참 아래인 전국 103위로 3,060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제주의 서귀포서 관할보다는 제주서 관할의 유동인구 등 외부변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지역별 범죄발생 건수 단순 비교(06년)[6]

지방청	관서	관할인구(명)	계	5대범죄					
			발생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순위						
경기	부천중부	487,923	10,471	8,460	8	83	116	4,249	4,004
			1	1	34	4	7	1	2
인천	인천부평	557,143	9,295	7,699	13	65	144	3,026	4,451
			2	2	11	198	2	6	1
제주	제주	400,701	9,015	7,022	10	42	93	3,298	3,579
			3	3	20	198	17	4	5
서울	강남	200,265	8,914	4,065	5	65	127	1,014	2,854
			4	35	74	198	5	80	19
제주	서귀포	156,868	3,060	2,291	7	8	22	1,086	1,168
			103	99	44	198	131	73	108
강원	정선	44,203	777	369	1	1	5	130	232
			165	181	174	198	196	187	183
강원	태백	52,463	755	541	2	3	7	148	381
			168	161	149	167	176	173	158
전북	장수	24,912	159	88	0	0	5	25	58
			232	233	207	212	196	233	232
경북	영양	20,082	156	91	1	0	1	31	58
			233	232	174	212	226	232	232
경북	울릉	9,550	87	60	0	1	1	3	55
			234	234	207	198	226	234	234

종합 비교・분석해 보면, 제주지역은 고정인구에 의한 범죄발생건수보다는 유동인구 등 외부변수에 의하여 범죄발생의 등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주지역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변수에 대한 전략적 예방경찰활동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에 대한 광범위하고 세세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적 대응(계획)방향 제시

제주지역의 범죄발생 요인은 앞서 논했듯이 지역주민 보다는 관광객 등 유동적 변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접근방법이 이러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범죄예방에 충실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모든 계층의 경찰관들이 참여하고 모든 부서의 경찰관들이 총력 동원되는 토대위에, 최고 품질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그 바탕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4.1 지역사회경찰활동 측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국에 걸쳐 크고 작은 도시를 불문하고 경찰서장 또는 서장에게 있어서 습관적인 단어가 되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의 전통적・사후 대응적 역할에 필수적인 사전적(proactive) 요소를 추가하여, 완전한 경찰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있다[7].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경찰활동의 지역사회화는 당연한 논리로 받아 들어져 왔다. 따라서 범죄예방 방안을 논함에 있어 그 기초는 경찰들만의 예방활동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책임 또한 공유하는 함께하는 범죄예방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4.2 총질관리 측면(TQM) 측면

총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 TQM)는 고전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기획・조직・지휘 등을 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전략이면서도 통합적인 관리체계이며, 데밍(W. Edwards Demming)은 품질은 제조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변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체계가 작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질관리는 강점은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내부고객인 종업원의 참여하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다[8].

또한 총질관리가 경찰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 후버(Hoover)는 총질관리가 3가지 주요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즉 문화(culture), 고객(customer), 계산(counting)이다. '문화'는 조직의 내부적 운용 철학을 의미하고, '고객'은 조직의 생산품 또는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고, '계산'은 조직이 어떻게 운용되고 구성요소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에 대한 조직 내의 책임과 이해의 요소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능률성, 효과성, 대응성의 관점을 지적한다[9].

이를 종합해 보면 관리 철학으로서 총질관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가장 유용한 도구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써는 고객인 시민의 만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더 좋은 장치를 개발하는 것, 직무수행을 추적해서 평가업무를 더 잘하는 것, 위기에 대응하는 것 보다는 계속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 경찰관서 전체에 걸쳐 높은 수준의 참여적 관리를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8].

4.3 전략적 계획(SP) 측면

또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s)은 관련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일련의 연속되는 결정을 요구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평소에는 장기적인 것이지만 전략계획은 주요한 경찰부서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자원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한 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찰기관을 통합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기획이다. 전술계획(tactical plans)은 특정형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과 일반시민들 간의 일상적인 문제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계

획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인질상황이나 비행기납치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특공대의 계획, 데모진압이나 정치적 집회들을 취급하는 계획, 교통법규 위반시의 경찰과의 대립상황, 일반 시민들 간의 대립을 중재해야 하는 상황,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으나, 전략적 계획 속에 전술적 계획도 포함되는 만큼 그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8].

또한 전략적 계획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총질관리를 바탕으로 양보다는 질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에 '전략계획책정은 전통적인 반응적(수동적) 경찰행태가 더욱 선제적(능동적)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출발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각 해당부서 또는 인력・예산 자원을 포함한 전체조직에서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하여 당연히 거쳐야 될 적정 단계를 정의하기 위한 초기과정으로써 2년에서 5년 동안 조직을 위하여 계획된 변화를 신중하게 예측하는 미래 지향적 과정이며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할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응하기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대응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10].

전략적 계획은 계획이행 과정 속에 참여하는 계층과 참여부서의 정도차이에 따라 4단계로 나눠질 수 있으며(① 제한된 적용과 함께 심도 있는 계획 모델 : 계층 관여도 - 높음, 적용 범위 - 낮음, ② 리더십 의존 모델 : 계층 관여도 - 낮음 적용범위 - 낮음, ③관리 모델 : 계층 참여도 - 낮음 적용범위 - 높음), ④ 전체 이행 모델 : 계층 참여도 - 높음 적용범위 - 높음)[10]

이번에 논하고자 하는 제주지역에 적합한 모델은 방향성은 전체 이행모델을 지향함이 옳을 것이나, 제주지역의 특수성(① 토착주민에 의한 범죄발생보다는 여행성범죄 등 외부변수에 의하여 범죄발생이 크게 좌우됨 ②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이원화 되어 있음 ③ 지방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가 상호 중복됨 ④ 주요 강력사건보다는 단순한 음주운전, 폭력, 절도 사건이 전국대비 높게 나타남 등)을 감안한다면, 全부서와 全계층을 포괄하는 전략적 계획 모델 보다는 특화된 범죄(여행성범죄 등)에 집중하는 즉 선택과 집중이 뚜렷한 제한된 적용과 함께 심도 있는 계획 모델이 가장 적시성 있는 경찰의 전략적 계획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

V. 결론

제주지역에서 현재, 특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 등 포괄적 방향성은 짚어 보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왜 타 지역에 비해서 범죄가 6%나 더 많이 발생했는지?, 왜 타 지역에 비하여 절도와 강력범죄(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그 세세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우리의 상식과 같이 제주지역은 세계적인 관광지이고 토착인구보다는 여행성 유동인구가 많으며 이로 인한 범죄발생 지수가 제주지역 전체 범죄발생건수 중요 증가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통계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범죄예방 대책 보다는 선택되고 집중된 즉, 여행성 범죄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제주지역 치안확보를 위하여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차후 제주지역 여행성 범죄에 대한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지역 유동인구(국내・외 관광객 유형별 통계, 비행기・선박 등 입출국 수단별 통계, 상주 기간, 주요 관광지역 및 거주지역 등)에 대한 기초통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통계에 기초한 현장점검 및 전화조사 등 실험적 연구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12].

참 고 문 헌

[1]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0109
[2]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기초통계자료*, 2012.
[3][4]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권 제141,142,143,144호), 2008, 2009, 2011.
[5][6] *경찰청 수사국 기초통계자료*, 2006, 2010.
[7] G. Witkan and D. McGraw, Beyond "Just the facts, ma'am," U. S. News and World Report,

p.8, 1993(8).

[8]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p.172-181, p.183, p.440-441, 2007.

[9] L. Hoover, "Translating total quality :management from the private sector to policing," in L. Hoover (ed), qualitifying quality in policing(Washington :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1996.

[10] 미국 법집행기관(경찰기관들의 총체)에서의 전략적 계획 조사, Jihong "Solomon"Zhao(sam Houston State University, Huntsville, TX), Quint C. Thurman(Texas State University, San Marcos), Ling Ren(Illinois State University, Normal), 경찰 계간지 제11권, 제1호, pp.1-3, pp.20-24, 2008(3).

[11] 한상암, 조호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2007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제5권 제1호, pp.14-22, 2007(6).

[12] 김종수, 신승균, 한국 자치경찰의 인력충원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7호, pp.182-194, 2008(7).

저 자 소 개

김 정 완(Jung-Wa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6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석사)
- 2010년 6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 현재 : 경찰청 근무

<관심분야> : 경찰수사, 경찰조직, 경찰부패

조 현 빈(Hyun-Bin Jo) 정회원

- 1999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범죄, 위기관리, 경찰조직, 경찰인사